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민 안전먹거리 보장→농업인 소득 증대

순천시 '지역 순환형 농정시책' 주목

순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의 감점을 살려 농업인이 도시민들의 안전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 순환형 농정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주주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력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과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지역 안전먹거리 종합계획인 순천형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등 농정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 주주가 함께하는 순천형 로컬푸드〉도시와 농촌 잇는 친환경 학교급식 =순천시의 지역 순환형 농정 시책의 출발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유통 비용이 많이 드는 타 지역을 공략하기 보다는 25만명의 소비 인프라를 갖춘 지역 도시민에게 눈을 돌려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모델을 그려낸 대표적인 사업이 2016년 3월 공식 출범한 순천형 로컬푸드사업이다.

순천형 로컬푸드는 지자체나 농협, 생산자단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타 지역과 달리 전국 유일하게 시와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1089명이 시민주주로 참여한 민·관 공동협력 모델이다.

2016년 5월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은 개장 1년 11개월 만에 매출액 70억을 달성하고 방문객 25만명을 돌파했다. 이중에 62억원이 고스란히 농가에게 되돌아 갔고 시민 소비자 회원도 점차 늘어 1만명에 이르렀다.

또 로컬푸드 레스토랑 '여미락'은 지역

로컬푸드 사업·친환경 급식 확대 등 도·농 상생 호응
텃밭채소 등 도시농부 늘고 내달 로컬푸드 2호점 개장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주차장에 위치한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개장 1년 11개월 만에 매출액 70억을 달성하고 방문객 25만명을 돌파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오는 5월 조례호수공원에 로컬푸드 2호점을 개장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시민 안전먹거리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잇는 친환경 학교급식도 또 하나의 지역 순환형 농정 시책이다.

시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들의 안전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163억원을 들여 친환경 급식 재료를 지원하

고 전남도내 최초로 유전자변형(GMO) 가공품을 학교 급식에서 퇴출시킨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장류 등 5개 품목에 대해 비유전자변형(Non-GMO) 가공품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와 마찬가지로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텃밭 채소 등 도시농부 증가〉지역 안전먹거리 종합계획 순천형 푸드플랜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채소를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다.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농업을 테마로 해룡면 신대리에 2만3127㎡ 규모로 2016년 4월 도시농업공원을 개장했다.

잡풀과 쓰레기로 방치된 신대지구 공터를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쉼이 있는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해 신대지구 명물로 부각시켰다.

올해 4월까지 조례, 영양, 오천 등 4개소에 공영텃밭을 조성하여 386명의 시민들에게 1구좌당 10㎡ 규모로 분양하고 어린이집 및 학교를 대상으로 텃밭 13개소를 공모해 지원했다.

순천시는 로컬푸드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 안전먹거리 종합계획 '순천형 푸드플랜'을 하반기부터 본격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순천형 푸드플랜의 핵심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외에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먹거리와 관련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중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순천시 먹거리 유통 실태 분석, 푸드 거버넌스 구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종합 관리하는 정책틀을 추진해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정원산업디자인전을 찾은 관광객들이 웹툰체험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순천시 제공>

미래 정원산업 방향 제시하고 저변 확대

정원산업디자인전 폐막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열린 '2018 대한민국 정원산업디자인전'이 폐막했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미래정원과 정원산업, 정원문화로 나눠 진행된 정원산업디자인전은 정원과 기술의테크놀로지의 결합, 관리하기 쉽고 편리한 미래 정원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스토리정원 마켓'은 60여개의 업체가 참여해 약 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스토리정원 마켓은 정원산업 관련 용품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담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생산 농가와 판매업체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데이'에서 조정설계 관계자들은 수요자 중심의 수종 생산과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유통망 개선이 지역 정원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숲 정원 활성화 컨퍼런스'에는 관련 업체와 학생 등 200여 명 참가해 숲 정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숲 정원에 대한 이해와 숲을 관광 자원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정원 6차 산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인기가 가장 높았던 VR 체험관은 순천만과 정원을 가상체험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행사 기간에 4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시는 습지센터 1층에 VR 체험관을 상설화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원산업과 문화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직업 체험공간에는 1만20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기업체의 협업을 진행한 '그린디자인스 선택' 존은 일상생활 공간을 반려식물과 함께 풀어나 관람객의 삶 속에 정원문화를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평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6 디자인전이 지역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면 2018 디자인전은 미래 정원산업에 대한 방향 제시와 일상 속에 정원을 가져다 놓아 정원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전 기간 국가 정원 임정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숲 정원에 대한 이해와 숲을 관광 자원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정원 6차 산업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순천시는 최근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 및 포상금) 8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방세 확충,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납세편의시책 등 40개 항목에 대해 2017년도 세정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전화민원 통합처리 시스템 도입과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금 강

좌,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등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도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킬링' 및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및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와 세무 상담과 고충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 농수특산물 미국 특판 인기

애틀랜타 시온마켓 개장 1주년 행사 2억원 매출

순천시의 농수특산물이 미국 내 마켓에서 인기리에 판매됐다.

순천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우수 농수특산물 5개 업체와 함께 미국 애틀랜타 시온마켓에서 개장 1주년 특판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애틀랜타 시온마켓 특판행사에 참가한 품목은 순천농협 김치류와 젓갈류, 매일식품의 장류와 소스류, 낙안전통식품의 보리떡 및 약과, 경덕농수산과 씨스타의 수산가공품 등으로 2억원 상당이다. 이 품목들은 캘리포니아주 시온마켓 5개 지점에서 동시에 전시·판매 됐다. 시온마켓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

형 한인마트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순천의 농수산가공품이 민관합동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농협 남도식품은 시온마켓 매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아 현지 교포들에게 남도의 맛과 향수를 제공하는 특별 마케팅도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의 수출기업들이 협업해 2억원의 매출 성과를 올린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농수특산물 수출 활성화와 올해 수출 목표 100억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미국 애틀랜타 시온마켓 개장 1주년 특판행사에 참여한 업체관계자들이 행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